

1분기 나라살림 적자 54조...올해 연간 전망치 육박

국세수입 24조 감소 주요 원인
작년보다 적자폭 8조5천억 늘어
작년 말 대비 국가채무 20.2조 ↑

올해 들어 석달 만에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까지 불어났다. 세금 수입 부진 등에 따라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5월 재정동향을 11일 발표했다.

해 들어 3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25조원 감소한 수준이다. 1분기 국세수입이 87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됐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소득세가 7조1,000억원 줄어든 가운데 법인세도 6조8,000억원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세외수입도 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50조9,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늘어 전체 감소폭을 완

충했다. 1분기 정부의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 상황이 총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였다. 1년 전

보다 적자 폭이 8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올해 들어 단 석 달 만에 정부가 예상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에 육박할 만큼 나라살림이 어렵다는 의미다. 4월과 5월 역시 법인세 부족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올해 상반기 중에는 나라살림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3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는 1,053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

4,000억원 감소했다. 3월 중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원)이 발행액(17조8,000억원)을 초과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20조2,000억원 늘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63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38% 수준이다. 해외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중장기성장 투자자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4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자는 플러스(+1조9,000억원)를 기록했다. /연립뉴스

한전KDN, 과기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선정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전문 인정
한전KDN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의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공급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부담 없이 수의계약이나 카달로그 계약 진행으로 계약 행위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다. 해당 제도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 지원서비스'와 함께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한 '클라우드 융합서비스' 등 3개 분야 서비스에 대한 계약제도로 정부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비스

공급자가 선정된다. 한전KDN은 금번 공급자 선정으로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운영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전문 공급자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한전KDN은 올해 4월 기준 현재 55개의 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클라우드 도입전략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하는 '컨설팅 서비스'와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관리 서비스' 추가를 통해 전문 MSP(Management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전환 구축,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자) 사업자로서 K-ECP(한전KDN-

EnergyCloudPlatform)를 활용한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에너지ICT 공기업으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구현과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며 "전력과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한 민·관 상생협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전환을 검토하는 공공기관에 고객사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성으로 효율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케이드-카카오엔터프라이즈 MOU 체결



위니아에이드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화주사를 대상으로 한 풀필먼트부터 설치·A/S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실시했다. (왼쪽부터) 백성식 위니아에이드 대표, 백성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 /위니아에이드 제공

풀필먼트부터 설치·A/S까지 위니아-카카오엔터프라이즈 '맞손'

물류사업 협력 강화 박차
대우위니아그룹의 위니아에이드가 국내 대표 IT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카카오i라스' 화주사 대상의 풀필먼트부터 설치·A/S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 체결식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본사에서 백성식 위니아에이드 대표와 백성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위니아에이드는 풀필먼트(전자상거래 통합 물류) 관련 물류 사업 확대, 신규 물류 네트워크 구축, 설치·배송·A/S 영역에서의 시너지 창출에 나선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물류 서비스 이용 고객 발굴 및 연결 협업, OMS(주문관리시스템), WMS(창고관리시스템) 등의 카카오i라스 솔루션 공급 등을 담당한다. 협력이 구체화되면 위니아에이드는 '카카오i라스'의 회원사로 온라인 소포물품을 운영하는 사업

자들에게 ▲물류 보관 및 관리 ▲설치·배송 서비스 ▲AS·CS 등의 전문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자들을 위한 ▲수출입 통관, 선적 등의 다양한 국제 운송 서비스도 제공한다. '카카오i라스'의 화주사는 별도의 인프라 투자 없이 위니아에이드가 제공하는 고도화된 물류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해 빠른 배송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물류플랫폼 '카카오i라스'는 AI를 기반으로 화주사와 물류센터가 판매, 주문, 창고 관리 등을 보다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백성식 위니아에이드 대표는 "위니아에이드는 다양한 온라인 소포물 사업장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며 "위니아에이드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더욱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물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농협전남본부는 최근 지역본부 중회의실에서 농협 비 전남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전남농협, 농협 비 전남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쌀 안정 대책 총력추진
농협전남본부는 최근 전남본부 중회의실에서 농협 비 전남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협의회원 조합장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안건 결의 및 협의회 임원진 선출, 쌀 수급안정 및 쌀 적정생산대책 총력추진 다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부회장으로 ▲이계욱 조합장(특농농협) ▲김정수 조합장(동북농협) ▲박정문 조합장(산이농협, 감사에 ▲

조영범 조합장(신안농협) ▲박영수 조합장(일로농협)이 선출됐다. 또한, 참가자들은 ▲전남 쌀 가격지지 ▲판매확대 ▲식량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으며, 2023년도 쌀 적정생산 대책(전남농협목표 5,600ha)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농협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김철규 협의회장은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농협 비 전남협의회가 전남 쌀의 위상을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박종탁 본부장은 "농협 비 전남협의회가 전년 발생한 쌀 수급불안정 해소 및 쌀 가격반등을 위해 역량을 모아주시어 감사하다"며 "전남농협은 쌀 적정생산 대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전남 쌀의 수급안정과 가격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비 전남협의회는 작년 9월 대한민국 양곡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전남 관내 농협 조합장들이 모여 설립한 모임이다. 설립 당시 초대 회장으로 김철규 조합장(문내농협)이 선출됐다. /우성진 기자

전남신보, 안심전환 우대보증 시행

도 소상공인 대상...2%대 금리
"금융비용 절감 방안 지속 모색"
지난 4월 전남도와 함께 전국 최초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특별 이자지원 협약을 체결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이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전남신보는 도 소상공인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안심전환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11일 밝

했다. 해당 보증은 기존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 2023년 내 만기 도래하는 경우 저금리 연장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 도 소상공인 육성자금과의 연계를 통해 약 3% 감면된 2%대의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전환 대출을 위한 특별자금 500억원을 별도 편성, 기존에 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금리 및 상환부담 없이 저금리로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심전환 우대보증은 기존 보증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대한 지원되며, 보증료는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도 보증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1년 간 연 0.6%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남신보는 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시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증비용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심사조건을 우대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신보 정양수 이사장은 "전남도의 상생금융 기조에 발맞춰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 발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용 절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한국광기술원,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앞장

광융합특화기업전환지원
수혜기업·교육생 모집

아울러 한국광기술원은 광융합산업 특화기업 전환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교육생도 오는 23일까지 모집 중이다. 모집 대상은 미취업 구직자, 기졸업생, 졸업예정자 등으로, 20여 명을 선발해 이론 및 실습 등 취업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은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한국광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광기술원 광융합기술인력양성센터(062-605-9291)로 문의할 수 있다. 한국광기술원 신용진 원장은 "광융합산업분야 기업의 성장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한국광기술원이 광융합산업 신규 아이템 발굴, 기술지원, 인력양성교육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광기술원은 '광융합특화기업 전환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 광주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2023년 지역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주에 소재한 광융합 산업 8대 분야(통신, 조명, 바이오, 정밀기기, 에너지 등) 중소·중견기업 중 40여 곳을 선정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역량진단, BM(비즈니스모델) 수립,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특허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